



“보초 설 때 온차 한
잔은...”

“60만 국군장병에게 더 따뜻한 겨울을”

7일 MEAK 세미나실서 사랑 의온차 전달 예배

사랑의 온차 전달 감사예배가 12월 7일 2시 군선교연합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온차는 원두커피와 핫초코가 담겨있으며 사과와 경기지역 각 부대별로 2BOX씩 전달된다.

감사예배 설교자로 나선 문호빈 군종 목사(군단사령부 군종참모)는 “이 사랑의온차가 전달되고 나면 중대장이 병사와 상담할 때, 당직자가 경계근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사랑의 온차가 손에 있다”며 “이 차 한잔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군복음화의 소중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합총회 여전도연합회 회장 김순미 장로는 “청년선교의 지름길인 군선교를 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다”면서 “사랑의온차가 전달되는 곳마다 예수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고 더 많은 영적 열매와 구원의 열매가 맺히길 원한다”고 격려인사를 전했다.

권순원 군종목사(육군 제6포병여단)는 “사랑의온차는 장병들 뿐만 아니라 부대의 간부들도 좋아한다”며 “보이지 않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군인교회와 군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후

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사랑의 온차 보내기 사역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정성이 담긴 성탄절 선물을 전달,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한국교회 군선교의 대표적인 동계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육·해·공군·해병대 600여 대대급 부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온차 보내기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준비된 물품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후원처의 일정대로 전달되고 있다.

군선교연합회 중앙본부는 경기도권 부대를 대상으로 집중 전달하고 전국지회는 각 지역에, 군종목사파송 10개 교단은 자체 전달 계획에 의거해 실시하게 된다.

군선교연합회에서는 각 교단과 지회, 개인을 중심으로 사랑의 온차 보내기 사역 후원금을 모금, 더 많은 성도들이 장병들에 대한 사랑을 보내줄 수 있도록 흥보해 나갈 방침이다.

사랑의 온차가 아닌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교단과 지회도 있다. 사랑의 선물의 경우 지역 내 교회에서 통일된 사랑의 선물대에 선물(동계물품, 간식 등)을 편지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해 각 부대로 보내게 된다.

총운영 기자

동반연, 여가부 동성애 옹호 성(gender)정책 규탄 국민대회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전국연합회’(이하 동반연)가 7일 오전 여성가족부 후문에서 “동성애를 합법화(법제화)하려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절대 반대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여성가족부 동성애 옹호 성(gender)정책 규탄 국민대회’를 이어갔다.

동반연은 “지금 일부 여성단체들은 개

헌을 통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현행 헌법에서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개정헌법에 성(gender)평등 항목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특히 “여성가족부 동성애 옹호 성(gender)정책 규탄 국민대회”를 이어갔다.

이어 동반연은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성(gender)관련 정책을 준비 중인 여성가족부가 기본계획을 성(gender)평등이 아닌 성(gender)평등을 기반으로 작성하기를 바라고,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추진 중인 성(gender)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WCC, 서울에서 ‘디아코니아협의회’ 진행

세계교회협의회(총무 올라프 0세 트베이트, WCC)가 2017년 12월 7일부터 11일 까지 서울에서 디아코니아협의회를 진행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WCC 동북아시아 회원교회를 비롯해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세계선교협의회(CWM), 세계교회구호연맹(AGCT Alliance), 세계루터교연맹(LWF) 등의 대표자 25명이 참석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박 교수의 사회로 제철웅 교수(한양대, 사회정책과)와 송인수 대표(사교육격정없는세상), 김진우 대표(좋은교사운동), 김철경 교장(대광고), 정기원 교장(밀알두레학교)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함께 대화했다.

NCCK는 이번 회의 목적에 대해 “예수 메니칼 디아코니아(봉사)에 관한 연구문

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동의 실천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서”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검토된 문서는 내년 6월 WCC 중앙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7일 오전 9시 30분 기독교관에서 개회예배를 드렸으며, 8일에는 한신대학교와 서울 동북 4구(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와 “안산다문화선교센터(감리교)” 등에서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갖는다.

아울러 10일에는 통합, 기장, 성공회에 속한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디아코니아 사역을 경험한다.

총운영 기자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에 대한 법적 보장 필요해”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2017 세미나 ‘기독교학교 대토론회’ 열려



한국에서 기독교사립학교가 존속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상곤 장관 중심으로 교육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7일 장신대에서 ‘기독교학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는 먼저 “교육에 대한 종교의 역할은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돋는 일”이라 지적하고, 특히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로서 이 땅의 교육은 그것이 어떤 교육이든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에 초월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면 박 교수는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와 한국교회도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어 그 이념에 편입, 그 이념을 성찰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조화될 때 연속성과 변화라고 하는 교육 본연의 모습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기독교가 보수 진보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육현실과 정책을 비평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박 교수는 “교육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비평해야 한다”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조건능력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의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경은 교육 주체가 부모임을 강조한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고, 그 의지를 사용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게 된다 ▶종교교육, 특히 기독교교육이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비평

박 교수는 현 정부에 대해 “교육이 국가 책임이란 인식을 지니고 교육 제반 과제들을 국가가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지만, 국가가 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교육의 국가주권’을 흥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했다. 그는 “국가가 교육을 지원하고 가정이나 부모 조건 관계없이 기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 전반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그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공약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나마 제시되고 있는 것도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이나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및 전환 등 사립

학교를 공립화 하는 방안 등”이라 지적하고, “(현 정부가) 사립학교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인가 궁금하다”면서 “한국의 교육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공존하는 조화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특목고나 자사고 등을 원래 목적대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고, 단일성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은 다양성 교육의 약화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새 정부가 “학원업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고, 학생들의 교육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교육비 감경정책, 학원휴일휴무제 등을 추진해야 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유학제제를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 교육에 대해서, 그는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립학교 교육과정은 종교적 접근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성과 융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종교교육 및 종교계 사립학교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는지 우려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박상진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정체성이 드러난 첫 번째 이슈로 소위 자사고 폐지 문제를 꼽았다. 그는 자사고 문제의 핵심에 대해 “일반고와 자사고의 대립문제가 아니고 한국에서 어떻게 사립학교가 가능하겠는가의 문제”라며 “일반고 드러난 자사고는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일반고 사립학교와 자율형 사립학교, 특히

일반고 기독교학교와 자사고 기독교학교가 더불어 한국에서 사립학교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또 박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립학교의 위축”이라 지적하고,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는데, 한국교회가 이를 성사시키려 노력은 기울임으로써 우리나라에 기독교학교가 건설하게 존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더불어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대로 종교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존립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말하고, “한국교회가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종교계 사립학교는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나아가 박 교수는 현 입시위주 교육의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교회 내에서부터 팬데믹에 있는 입시위주의 왜곡된 교육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여건之下를 잘 행하기 위해

“기독교계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형태의 한국교육의 중장기적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고 다시금 당부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박 교수의 사회로 제철웅 교수(한양대, 사회정책과)와 송인수 대표(좋은교사운동), 김철경 교장(대광고), 정기원 교장(밀알두레학교)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함께 대화했다.

조은식 기자

회자로 아니 한국교회의 목자로 한 평생을 바치다가 2000년 4월 19일 고난 절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98세를 사시고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악함과 죄악과 겸손의 목회자 한경직 목사님의 인간의 면모와 목회자의 면모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인간 한경직은 “고난”과 “악함”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한 평생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절감한 분이었고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체험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절망했으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를 진정한 목회자로 만든 비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경직이 17세 되던 1919년 평양 영성소학교 교사로 복직하고 있던 때 일본 고등계 혔사들의 혹독한 고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는 고문당한 후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경직이 27세 되던 1929년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때 폐결핵 3기라는 진단을 받고 그는 또 한번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절감했습니다. 진학은 물론 인생 자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과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도 건강도 아무 것도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는 절망감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한경직이 1932년 귀국 후 모든 좌절을 딛고 1933년부터 목회의 길로 매진하기로 헌신했으나 1938년 일제의 강요에 무릎을 꿇는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일본 경찰의 강요에 의해 1942년 신의주 제2교회를 사임하고 3년 동안 보린원 원장으로 봉사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얼마 안되어 평북지사를 맡았던 일본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일본인들이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목사가 치안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일본인의 딱한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일본인의 요청을 수락하고 평안북도 치안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경직 목사님은 누구의 요청도 거절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 또는 “선향한” 사람으로 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최장근 장로가 한경직 목사님의 유일한 약점은 어떤 사람의 요청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이와 같은 “약점”을 지니고 살게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은 군사독재정권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시위나 서명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군사독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그의 “약함”이라고 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의 평소의 나라 사랑과 반공주의와 복음전파의 소신과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2년 동안 노환으로 많은 고난과 약함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한 평생 폐 하나를 도려낸 장애인으로 약하게 살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어느 대답에서 괴로운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일생을 연약한 몸으로 살아온 것이 제일 괴로움이었지요.”라고 대답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2년 동안 두 다리를 수술하는 고통도 겪었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답답함도 당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6개월 동안은 가래가 너무 끓어서 목에 구멍을 뚫고 지내는 극심한 괴로움도 겪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저의 손을 붙잡고 “늙는 것이 재미 없어”라고 그의 노약의 서글픈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한 평생 약하고 아프게 살았습니다. 그는 몸뿐 아니라 인간 자체는 약한 존재인 것을 실감하고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하면서 “우리 사람은 약합니다” “우리는 파산된 존재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고난과 약함의 사람으로 살다가 고난과 약함의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평안하게 죽는 것이 복일 수도 있으나 진정한 목사와 제사장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 한경직에게서 “약한” 사람을 봅니다. 인간 한경직은 “고난”과 “약함”의 사람입니다.

둘째로, 인간 한경직은 “회개”와 “참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죄를 고백하는 “회개”와 “참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죄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젊어지고 고백하는 “회개”와 “참회”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제사장처럼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회개”와 “참회”的 삶을 살았습니다. 한경직이 27세 되던 1929년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할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죄를 허용해주시는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삶을 주셨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的 모습에 충격과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옥한흠 목사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에 대해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은 텁풀턴상 수상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나는 신사 참배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라고 인사말을 할 때였습니다.”라고

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때 폐결핵 3기라는 진단을 받고 그는 슬픔과 절망 중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월남 후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的 삶을 살면서 “자복”과 “회개”的 메시지를 자주 전했습니다. 1955년 11월 6일에 행한 “사죄의 축복”이란 제목의 설교에서는 사죄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것은 안수기도를 받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선사업이나 도덕적 생활을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역설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에 행한 “회개와 보상”이란 제목의 설교에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 교회, 우리 전 민족이 새 해에 축복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인데 회개의 삶은 길입니다. 참 회개는 후회만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때마다 자기는 부족한 죄인임을 거듭해서 고백했습니다.

1973년 1월 2일 한경직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추대되던 날 백낙준 박사, 홍현설 박사 등의 친사에도 불구하고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사과했습니다. “은퇴하는 저에게 분에 넘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락교회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 앞에 사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지 못하였고, [양 때를 두고 도망쳤고] 그분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은 1992년 텁풀턴상 수상을 축하하는 모임에서였습니다. 1992년 6월 18일 오후 3시 여의도 63빌딩에서 축하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그는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죄를 허용해주시는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삶을 주셨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的 모습에 충격과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옥한흠 목사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에 대해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은 텁풀턴상 수상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나는 신사 참배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라고 인사말을 할 때였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선미 양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사참배 했던 죄인이라는 목사님의 고백 속에서 전 그만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시대는 의인은 많지만 죄인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죄인이 보고 싶은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 한경직에게서 죄인을 봅니다. 인간 한경직은 죄를 고백하는 “회개”와 “참회”的 사람입니다.

셋째로, 인간 한경직은 “기도”와 “눈물”的 사람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 평생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기도”와 “눈물”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울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과 민족의 고난과 약함과 아픔과 절망 중에서 드려진 진술하고 처절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깊은 기도에 빠지게 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1924년 여름 황해도 구미포 해변을 혼자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세미하고 강권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길은 이것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몸 바쳐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한경직 목사님은 한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함께 민족의 비극을 가슴 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남한산성에서의 마지막 26년 동안의 삶도 기도와 눈물과 묵상으로 이어진 삶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30여분 동안 산책과 체조를 한 다음 5시 30분부터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가졌고 때때로 언덕 길을 올라가 조그만 바위 둘 위에 앉아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본의 복음화와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남한산성에서 저의 손을 꼭 쥐고 순교하신 저의 아버지(김관주 목사)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다는 언제나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시곤 했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 한경직에게서 눈물의 사람을 봅니다.

넷째로, 목회자 한경직은 “설교”와 “기도”를 쉬지 않은 복음전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설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터어난 사람처럼 한 회에서 추방당한 후 1945년까지 보린원 원장으로 지내면서 한 편으로는 고아와 노인들을 돌보고 한 편으로는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는 북쪽을 바라보며 신의주 제2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역시 그 언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환상이 보였습니다. 언덕 밑으로 삼천리 산간이 한눈에 보이는데 흰 들판 지은 교회당이 그 강산을 꽉 메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소스라치며 눈을 빛습니다. 순간적으로 “일본은 틀림없이 망하고 조국은 분명히 독립한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기도와 환상은 후에 흰 들판에 영락교회 교회당 건축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함께 민족의 비극을 가슴 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남한산성에서의 마지막 26년 동안의 삶도 기도와 눈물과 묵상으로 이어진 삶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30여분 동안 산책과 체조를 한 다음 5시 30분부터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가졌고 때때로 언덕 길을 올라가 조그만 바위 둘 위에 앉아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본의 복음화와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남한산성에서 저의 손을 꼭 쥐고 순교하신 저의 아버지(김관주 목사)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다는 언제나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시곤 했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 한경직에게서 눈물의 사람을 봅니다.

평생 설교하며 복음을 전파한 말씀과 복음의 목회자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회고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중요한 것은 설교, 삼방, 교회운영이다. 설교를 통해 전도하고 양을 먹이어야 한다.” 그리고 설교의 목적은 전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꼭 몇 마디라도 전도 설교를 해서 그들을 겨려내야 한다.”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를 시작할 때 전도를 교회의 첫째 사명으로 삼으며 교회 이름을 아예 베단니 전도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목회 시초부터 설교를 통한 복음전파에 주력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복음 전파와 함께 교육과 복사에 주력한 것은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확신에서 비롯했고 둘째는 그의 성서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교회관에서 비롯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면서도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한 평생을 바쳤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설정한 영락교회 네 가지 지도방침 중 첫째가 “성서중심적 복음신앙”이었습니다. “복음주의의 신앙이라 함은 성경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와 부활 중심의 신앙을 의미한다. 그리고 복음주의라 함은 소위 자유주의 노선과는 대립되는 말이다. 독선적 근본주의적 보수정통의 유혹에 기울이지도 안하고 오만한 자유주의의 흐름에도 한눈 팔지 않는다.”

이제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인 설교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마치 연약한 체구의 암브로스의 설교가 어거스틴에게 놀라운 영적 감화를 미쳤던 것처럼 병약해 보이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가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감화를 끼쳤는데 그 비결은 그의 설교에 “영적 카리스마”가 있었고 그의 설교에 “대중성” “신행 일치” “인간사랑” “실존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

설교

평생 설교하며 복음을 전파한 말씀과 복음의 목회자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회고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중요한 것은 설교, 삼방, 교회운영이다. 설교를 통해 전도하고 양을 먹이어야 한다.” 그리고 설교의 목적은 전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꼭 몇 마디라도 전도 설교를 해서 그들을 겨려내야 한다.”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를 시작할 때 전도를 교회의 첫째 사명으로 삼으며 교회 이름을 아예 베단니 전도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목회 시초부터 설교를 통한 복음전파에 주력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복음 전파와 함께 교육과 복사에 주력한 것은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확신에서 비롯했고 둘째는 그의 성서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교회관에서 비롯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면서도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한 평생을 바쳤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설정한 영락교회 네 가지 지도방침 중 첫째가 “성서중심적 복음신앙”이었습니다. “복음주의의 신앙이라 함은 성경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와 부활 중심의 신앙을 의미한다. 그리고 복음주의라 함은 소위 자유주의 노선과는 대립되는 말이다. 독선적 근본주의적 보수정통의 유혹에 기울이지도 안하고 오만한 자유주의의 흐름에도 한눈 팔지 않는다.”

이제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인 설교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마치 연약한 체구의 암브로스의 설교가 어거스틴에게 놀라운 영적 감화를 미쳤던 것처럼 병약해 보이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가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감화를 끼쳤는데 그 비결은 그의 설교에 “영적 카리스마”가 있었고 그의 설교에 “대중성” “신행 일치” “인간사랑” “실존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규 교계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30-20-571787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며 상황적인데 평이하고 경건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신명 목사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가 그의 인격과 경건성에서 흘러나오는 설교이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성 박사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평범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펼쳐주는 설교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진경 목사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조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향록 목사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가 친근감과 감동이 있는 것은 그의 설교가 말이 설교하는 설교가 아니고 겸손과 기도와 인격이 설교하는 설교이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가 복음적이기보다는 윤리적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철학자요 윤리학자인 손봉호 교수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에서 매우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윤리적 설교가 매우 드물고, 윤리적인 문제를 다룰 때라도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일부 혹은 그 당연한 결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신앙만 강조하면 그만이 윤리를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던 것 같다.”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 중심적인 목회자였지만 그의 설교와 목회는 언제나 전도 지향적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전도에 대한 열정은 아세아 복음화 운동과 세계복음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사 세력확장과 자기 왕국건설에 여념이 없는 경쟁시대에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일념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생활을 바친 복음전파의 목회자를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에게서 발견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건 복음 전파의 목회자였습니다.

다섯째로, 목회자 한경직은 돌봄을 쉬지 않는 “사랑”과 “봉사”의 목회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봉사는 복음의 생활화요 신학의 실천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악한 자 그리고 원수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라고 강조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33년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가난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는 1936년경 고아원을 설립하여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1939년에는 남 신의주에 땅을 얻어 벽돌집을 신축하여 고

아들과 노인들이 함께 거처할 수 있는 공동체적 복지 시설인 “보린원”을 만들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1945년 10월 월남 후 12월 2일 서울 저동에 베다니 전도교회를 설립하고 월남하는 피난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동시에 암식과 거처할 숙소를 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1946년 11월 베다니 전도교회는 영락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영락교회는 피난민들과 실향민들의 암식처가 되었고 새로운 삶의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3대 목표 중의 하나를 봉사로 정하고 봉사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창립 1주년을 맞은 1946년 12월 1주일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민중들을 인도하고 돌보는 사회 봉사를 밝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미 그 해(1946년) 3월 16일 주일 “상부상조의 정신”이란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가난한자, 병든 자, 나그네 등을 돋는 상부상조임을 강조하며 호소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봉사의 목회는 그의 성서적인 교회관에서 비롯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교제와 봉사를 항상 강조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50년 6월 서울을 떠나 피난 길을 가면서도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전에서는 “기독교 구국회”를 조직하여 피난민을 구호하고 국군을 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을 돋고자 부산에 와 있던 밤 피엘스 박사와 함께 기도회를 개최하고 피난민들을 돋는 일을 하다가 피엘스 박사로 하여금 미국에 돌아가서 “월드 비전”을 창시하여 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의 피난민들을 돋게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후에 고난하고 병들고 악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영락보리원을 비롯해서 모자원, 경로원, 노인요양소, 농아원, 장애아원, 어린이집, 재가 노인복지 상담소 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90년 1월 17일부터는 “사랑의 삶 나누기 운동”을 폭넓게 펴나갔습니다. 영락교회의 이창로 장로는 목회자 한경직의 특징중의 하나는 “긍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목회자 한경직은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 봉사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래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프랜시스 쇼요 한국의 슈바이처요 한국의 테레사로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봉사는 이기적인 봉사도 과시적인 봉사도 아니었습니다. 이타적인 봉사였고 드러내지 않는 숨은 봉사였습니다. “비록 교파는 다르지만 교파를 초월해서 온 교회가 다 같이 당면하는 일 즉 국가 민족 사회를 위한 봉사나 복음전파에 있어서 서로 협력할 줄 알아야 한

온 순수한 봉사였습니다. 자기 과시와 자기 명성을 위한 팽과리 소리가 요란한 선전시대에 이름도 소리도 없이 가난하고 악한 사람들을 돋기 위해 자신의 소유와 자신을 모두 허비한 사랑과 봉사의 목회자를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여섯째로, 목회자 한경직은 “화평”을 추구한 “협력”의 목회자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 일을 보면서 제일 애운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화평”이라고 대답한 일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바탕으로 화평을 이루어간 “화평”과 “협력”的 목회자였습니다. 최장근 장로는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의 첫째 특징을 “화평”的 목회라고 지적했고 이종성 박사는 한경직 목사님의 특징 세 가지 중의 하나 “협력”的 목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화평”的 목회는 한경직 목사님의 교회관에서 비롯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가 분열될 수 없는 한 교회의 통일성과 공동성이 파괴될 수 없다. 사업보다도 인물이 실천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봉사의 목회는 그의 성서적인 교회관에서 비롯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교제와 봉사를 항상 강조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50년 6월 서울을 떠나 피난 길을 가면서도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전에서는 “기독교 구국회”를 조직하여 피난민을 구호하고 국군을 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역사의식과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산 분이었습니다. 아마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는 “역사의식”은 오산학교의 이승훈 선생과 조만식 선생으로부터 배웠을 것이고 후에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폭넓게 연마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일대학 박사과정에서 교회사를 연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귀국 후 조선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끝으로 살아가면서 역사의식을 스스로 터득하며 역사의식을 가지고 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남 다르게 폭넓은 사고와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고 세계를 그의 활동 무대로 삼은 것은 그의 비범한 인격과 함께 그가 터득한 역사의식과 역사적 안목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다양성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역사적 안목의 비결을 지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한국 나라와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한 분이었지만 동시에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넘어서서 세계를 품고 사랑하며 봉사

한 분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57년 3월 3일에 행한 “성서적 애국심” 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도 애국자이십니다”라고 말하여 나라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성서적 애국심이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성서적 애국심은 혹 우리 사회에서 가끔 듣는 민족지상주의나 국가지상주의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서가 가르치는 애국심은 민족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기주의와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 인류의 연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만민의 아버지시오, 사해는 동포이며 형제입니다. 연대성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연한 것같이 우리 사람은 각자 나뉘어 있지 않고 다 서로 연결되어 헤어질리야 헤어질 수 없는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히 사회를 이루어 살게 되어 있는 깊이에 사회의 한 분자가 되었고 사회의 한 분자가 된 다음에는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실에 대하여 공동적인 책임을 자연히 지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신앙을 자기 개인의 율타리 안에 가두거나 목회를 개 교회의 율타리 안에 가두어 놓지 않고 이웃과 사회와 민족과 세계의 율타리로 뻗어나가게 했습니다. 그는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폭넓은 연계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과 활동의 범위는 넓고 다양했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은 전도와 교육과 봉사는 물론 사회복지, 치안유지, 정당활동, UN 활동, 세계선교와 구호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미쳤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과 한국 교회가 지나지 못했던 역사의식과 역사적 안목을 지니고 폭넓게 살았습니다.

곱으로, 인간 한경직과 목회자 한경직은 삶이 깨끗한 “청빈”的 사람입니다. “청빈”的 목회자였습니다. 인간 한경직과 목회자 한경직의 삶과 사역의 면모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예수님이 저마다 폭넓은 사고와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고 세계를 그의 활동 무대로 삼은 것은 그의 비범한 인격과 함께 그가 터득한 역사의식과 역사적 안목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다양성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역사적 안목의 비결을 지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82년 8월 11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빙손 들고 왔다가 빙손 들고 갈 인생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본인의 말 그대로 빙손 들고 왔다가 빙손 들고 간 깨끗한 청빈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2000년 4월 10일 오후 1시 15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세상은 임을 모아 그를 가리켜 “청빈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그를 높이 기렸습니다. 명예와 물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부끄러운 오늘의 시대가 가장 보고 싶어 한 사람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빈과 봉사의 사람 장기려 박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작은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아쉬워했듯이 청빈과 봉사의 사람 한경직 목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작은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모두들 아쉬워 했습니다. “신앙계”는 한경직 목사님을 기리며 그를 가리켜 “3무의 삶”을 실천한 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통장, 집, 재산이 없는 3무의 삶을 실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빈”이 그분의 삶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분명히 “한국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손봉호 교수)이었고 “20세기 한국이 넓은 세계적인 성자”(정진경 목사)였습니다. 빌리 그雷함 목사는 한경직 목사님을 가리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모하는 분”이라고 부르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시인 고훈 목사는 한경직 목사님을 기리며 “가난한 목자, 사랑의 목자, 작은 예수”라고 목이 떠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 한경직과 목회자 한경직의 면모를 살피고 나서 청결한 고뇌를 느낍니다. 절망적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위대한 참 목자 한경직 목사를 존경하고 익찬하고 흡모하는 것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진실도 없고 겸손도 없고 청빈도 없고 참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숨김도 없고 사랑도 없는 나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진실 대신 거짓, 겸손 대신 교만, 청빈 대신 탐욕, 참회 대신 위선, 눈물 대신 강퍅, 숨김 대신 자랑, 사랑 대신 배반 등으로 가득한 내가 설 곳은 어디란 말인가? 청결한 고뇌와 절망적인 부끄러움과 깊은 탄식을 느낄 뿐입니다. 단지, 이런 분을 이 땅에 아니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부끄러운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사와 함께 있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이

코트는 없어졌지만, 겸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한아버지의 코트

스쿨 라이브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곳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창민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해쳐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예,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도 채깃으로 죠끼를 만들고, 그 죠끼로 네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아침고, 오래되고, 물들었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어요.
전통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한국 디자이너·보자기 아티스트 이효재

한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토서 문화 02-724-7011